

□ 정보산업동향 □

1999년 추계 컴덱스 현장에서의 리눅스 열풍

우 병 현[†]

◆ 목 차 ◆

1. 리눅스와 윈도우 2000의 대결
2. 새로운 리눅스 소프트웨어
3. 기업용 리눅스 제품

세계 최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시회인 1999년 추계 컴덱스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 미국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되었다. 2000여 개 업체가 1만여 개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전시한 이번 컴덱스에는 다양한 인터넷 접속기기와 리눅스 응용 소프트웨어가 주목을 끌었다. 현지 언론들이 ‘테크노 밀레니엄’을 알리는 행사라며 흥분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22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1. 리눅스와 윈도우 2000의 대결

이번 컴덱스의 하이라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와 리눅스의 치열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빌 게이츠 회장은 컴덱스 전날인 14일 1만여 명의 청중 앞에서 MS의 야심작 윈도우 2000을 선보였다. 2000년 2월 17일부터 판매될 윈도우 2000은 인터넷 환경속에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운영체제이다. 빌 게이츠는 윈도우 2000을 “이용하기 쉬운 윈도우 98의 장점과 윈도우 NT 4.0의 안정성을 합친 새 제품”이라고 선전했다. MS사는 컨벤션센터 입구에 엄청난 면적의 전시관을 마련해 윈도우

2000 서버 등 윈도우 시리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다. MS사는 또 각종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사용될 수 있는 운영체제인 윈도우 CE의 부각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윈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자로 꼽히고 있는 리눅스는 이번 컴덱스 쇼를 통해 비즈니스의 공식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컴덱스쇼 주최사인 ZD이벤트사는 사상 처음으로 리눅스 비즈니스 엑스포관을 별도로 만들고, 리눅스의 최초 설계자인 리누스 토발즈씨를 기조연설자로 초청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 등 쟁쟁한 정보통신업계 거목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다. 20년 전통의 컴덱스가 반 윈도우 진영의 선봉장인 리눅스의 잠재력을 인정한 셈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레드햇을 비롯해 칼데라의 오픈 리눅스와 터보리눅스의 터보클러스터 서버 4.0 등 20여 개의 전문업체들의 주력제품을 대거 전시했고 전자상거래 시스템, 메일 서버,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등 리눅스를 기초로 한 다양한 솔루션이 선보였다.

2. 새로운 리눅스 소프트웨어

컴덱스 쇼에 새로 등장한 리눅스 제품군의 공통점은 약점으로 꼽혀왔던 사용의 편의성과 안정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었다. MS

[†] 정회원 : 조선일보사 기자

윈도우처럼 아이콘을 보면서 마우스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GUI가 리눅스에도 많이 등장했다. GNOME과 KDE는 윈도우 사용자가 쉽게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바탕화면 메뉴 구성이 윈도우와 흡사했다. 캐나다의 소프트웨어 1위 업체인 코렐사는 일반인용 리눅스를 개발한데 이어, 과거 MS 워드에 밀려 사라졌던 워드프로세서인 워드퍼펙트의 리눅스 버전을 소개했다.

또 썬마이크로시스템즈사는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스케줄러 등 7개 응용 소프트웨어를 묶은 스타오피스를 MS오피스에 대한 대항제품으로 선보였다. 이 제품은 서버 컴퓨터에 하나의 소프트웨어만을 보관하고 있다가,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비슷한 기능의 제품을 수백달러대의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MS에게는 큰 위협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 전문가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어 소프트웨어도 무료로 상품화하는 흐름을 컴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드햇, 슈즈(Suse) 등 다수의 리눅스 회사가 스타오피스를 무료로 끼운 제품을 일제히 공개했고, 엑스리눅스사는 한국어, 중국어 등 다국어 지원을 리눅스 배포판을 선보였다.

3. 기업용 리눅스 제품

리눅스를 저렴한 정보시스템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을 위해, 고성능 서버용 리눅스, 데이터 백업용 장치, 방화벽, 전자상거래 솔루션 등이 등장했다. 압티파사는 알파칩세트에서 돌아가는 리눅스를, 터보리눅스사는 강력한 기업 시스템 구축 시스템인 ‘터보클러스터 서버4.0’을 내세웠다.

프로그래시브 시스템사는 방화벽 장비와 가상 사설망(VPN) 장비들, 녹스소프트웨어사는 저렴한 가격대의 백업-저장 시스템으로 눈길을 끌었다. 아후가 대용량 웹서비스용으로 채택함으로써 명성을 얻은 FreeBSD도 대용량 시스템 구축용으로 명함을 내밀었다.

그밖에 사이베이스사와 볼랜드사가 기업용 솔루션 개발도구로 각각 어댑티브 서버와 텔파이5를 전시했다.

한국의 911컴퓨터사는 부팅시 리눅스와 윈도우를 버튼 하나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장비인 트리오스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